

★오늘의 추천경주★ 그것이 알고싶다.

부산 4경주

등급조정 이후 결승전을 어쩔 수 없이 강급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번 결승전 역시 우수급에서 내려온 선수들끼리 대결 구도라 거의 우수급 일요경주와도 비슷한 혼전성 경주다. 연이틀 보여준 경기력은 3번 정해권이 좀 더 나아보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5번 강병석의 희생이 없이는 정해권도 쉽사리 돌파구 마련이 어렵겠는데, 그렇다면 투 트랙으로 차권 공략으로 나서 봐야겠다. 우선해볼 부분은 6번 권성오를 중심으로 2번 한재호, 1번 오대환, 4번 강병철을 중심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노조세력과 정해권을 살짝 받치는 쌍복승 6-2-1,4,3 순으로 눈여겨 봐야겠고, 반대로 강병석이 주도권을 잡는다면 정해권과 7번 조영소를 연결하는 3-7 중심으로 권성오, 강병석, 오대환을 연결하는 3-7-6,5,1 순으로 노려 봐야겠다.

광명 5경주

이번 광명 선발급 결승전도 부산 결승과 비슷한 난이도다. 전일 보여준 6번 오기호의 시속과 2번 송경방, 7번 배준호의 연결고리가 꽤나 끈끈하다. 하지만 금일은 1번 이동근, 5번 전준영, 3번 임요한의 조합으로 인해 오기호가 제 타이밍에 대쉬하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닐 수 없겠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삼복승으로 1-5-3,6을 우선하면서 반대 차권인 삼복승 2-6-7,1을 받치는 베틱 전략을 권해드린다.

광명 12경주

나홀로 노조세력인 4번 안재용이 큰 활약을 펼치기엔 제약사항이 많다. 그렇다면 강급자 7번 손성진을 중심으로 1번 김태완, 3번 엄희태, 5번 정윤혁이 움직임을 가져가겠다. 득점으로 볼땐 엄희태가 유리해 7-3-1,5로 봐야 하지만 개인적으론 동서울팀 29기 듀오 김태완과 정윤혁을 손성진이 좀 더 의식할 수 있어 7-5-1,3으로 접근하는 쌍복승에 좀더 비중을 뒀으면 한다.

광명 16경주

절대강자 2번 정종진이 어떻게 줄을 세우느냐에 따라 입상운곽이 달라지겠다. 이달 자력형들인 수성팀을 의식하지 않을 순 없겠다. 그래도 7번 황인혁 정도는 붙여줘야만 정종진이 생각하는 타점에 치고 나설 수 있다고 판단하겠는데, 그렇다면 정종진 앞에 6번 임유섭이 위치할지, 아니면 3번 석혜윤이나 1번 정해민이 위치할진 미지수이기에 쌍복승 2-7-6,3,1 순으로 접근하면서 성낙송의 복병 가능성만 체크하면 될 결승전이겠다.